

## 과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사유: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정우(철학 아카데미)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제도화된 학문체계에서의 과학(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아니다. 학문의 영역/분야라는 면에서가 아니라 사유의 양식이라는 면에서 본 과학과 인문학이다.

주제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도 굵직한 선들만 잡아서 진행시켜야 할 듯하다.

과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사유를 비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이 논의는 존재론적 성격의 논의이다. 동일성과 차이, 하나와 여럿, 실재와 현상, 필연과 우연, 메커니즘과 의미 같은 여러 측면들에서 과학과 인문학을 비교할 수 있다.

### 1.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오늘날 누구도 이런 식의 명제를 과학적 명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과학“적 사유”의 원형은 이 명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물 사이의 차이를 동일성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달리 말해 만물/여럿을 하나로 환원시키고 있다.

과학적 사유는 차이들을 동일성으로, 여럿을 하나로 환원하는 성격을 띤다. 예: 랑그와 파를(비교역사학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생물학적 회로들, 물리학의 법칙들.

동일성으로의 환원은 시간의 제거(elimination of time)를 함축한다.

차이, 여럿: 공간적-현실적 차이/여럿과 시간적-잠재적 차이/여럿.

시간의 흐름은 차이들을 산출한다. 차이생성(differentiation)이 세계의 근본성격이다.

동일성으로의 환원은 공간적-현실적 차이를 종, 유 등의 형상이나 심층적 구조로 환원한다.

시간적-잠재적 차이를 법칙, 즉  $t$ 를 근본적인 변수로 하는 법칙으로 환원한다.

고대의 본질(예: 아리스토텔레스), 근대 이후의 법칙(예: 화학법칙), 현대의 구조(예: 레바-스트로스)가 대표적이다.

시간의 제거에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측면들이 존재한다. 이 측면이 역설적으로 과학을 발전하게 만들어 준다.

무한소 미분은 매순간의 운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운동의 수학적 정복을 가능하게 했다.

시간적 동일성은 필연의 형태로 나타난다. 과학은 결정론을 기초로 한다.

## II.

인문학적 사유는 동일성/하나로의 환원 대신 차이와 여럿을 중시한다.

인문학은 'mythos=history' 즉 '이야기'의 성격을 띤다. 그것은 "사람 시는 이야기"이다.

동일성으로의 환원은 이야기를 소멸시켜버린다. 이야기는 차이와 여럿을 중시한다.

화학적으로 하나의 동일성으로 파악되는 물은 무수한 이야기들로 다루어진다.

인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realism'의 두 가지 맥락. 실재와 현실.

자연현상도 의미로서 읽게 된다. 역학(易學)에서의 상수학과 의리학.

인문학에서 시간은 핵심적이다. 기계적 존재에는 시간이 없으며 있다면 퇴행적 시간만이 있다.

생명체 특히 인간은 기억과 상상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며 삶이란 시간의 지평 위에서 펼쳐진다.

'mythos=historia' 즉 이야기는 곧 역사이다.

동일성은 차이들의 뉘앙스를 접어두었을 때 성립한다.

인문학에서는 필연-우연 쌍보다는 이유-우발성의 쌍이 중요하다.

"실존(essence)이 본질(existence)에 앞선다." (사르트르)

개별적 존재들의 중시.

III.

19세기 후반 이래 과학의 논리는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열역학 제1 법칙과 제2 법칙의 관계.(양과 질의 문제)

다윈의 진화론: 우발성이 전제됨.

양자역학: 예컨대 물질파, 불확정성 원리 ...

복잡계 이론: '간명성의 신화'로부터의 일탈

급변론: 연속성의 원리에서 탈피.

인문학도 학문인 이상 소통 가능성과 일반성을 무시할 수 없다.

문학과 실존주의

역사학과 변증법

인문학은 다양성이 생명

타원의 두 초점.

과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사유: 가장 큰 차이는 메커니즘과 의미 사이에 있다.

늡음과 죽음의 예.